

“코로나 이기는 면역력”... 홍삼 등 건기식 매출 폭발

이마트·올리브영·랄라블라 등 업계 건강세트 매출 최대 285% 증가
프로폴리스 등 상품 종류 다양화
시장규모 4.6조... 연 11.7% 성장
업계, 신제품 출시 등 사업강화 나서



롭스는 매장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했다.

/롭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면역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발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면역 관련 신제품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2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세트 매출이 285% 증가했다. 헬스앤뷰티매장 CJ올리브영에서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40% 늘었다. 이마트의 올해 추석 예약 판매 중 건강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랄라블라 올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46.8% 증가했으며 롯데쇼핑의 롱스온라인몰의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35% 늘었다.

이런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은 홍삼뿐

만 아니라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폴리스, 밀크씨슬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롱스의 비타민 매출이 최근 6개월간 97% 증가했으며, CJ올리브영은 올해 8월까지 유산균 매출이 120% 급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취약한 장년층에게 유독 치명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면역 관련 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선진국 대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향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미

국 1인당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134달러이며, 일본은 87달러, 오세아니아는 92달러 수준이지만, 국내의 경우 71달러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판매 등에 관련된 규제 완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연평균 11.7% 성장, 지난해는 4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

나19 재확산에 따라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 5~10%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시장조사업체 칸타는 예측했다.

이러한 추세에 유통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H&B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주요 구매 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CJ올리브영은 하반기 '건강 새로그침'이라는 콘셉트를 내걸고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에 나섰다. 상품구색을 세분화, 전문화했고 매장 진열 방식도 기능별로 바꿨다. 롱스는 건강기능식품 특화 매장을 따로 만들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했다.

식품업계도 면역력 향상에 좋은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정관장은 지난달 31일 여성의 활기찬 생기를 채우고 몸을 보하는 '정관장 천녹W' 신제품을 출시했다. 동원F&B의 홍삼 전문 브랜드 천지인은 '천지인 홍삼정 백작(白作)'과 '천지인 홍삼정 수작(秀作)' 등 프리미엄 홍삼정 2종을 출시했다. 한국야쿠르트는 '발효 발효홍삼 진녹원'을 선보였으며, 김점문알로에는 다당체를 풍부하게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장·면

역N K알로에'를 출시했다.

일화의 홍삼 전문 브랜드 홍건강은 건강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그우면 김민경을 모델로 전격 발탁하며 브랜드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김민경은 '맛있는 녀석들'과 '오늘부터 운동똥'에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세점 이용이 줄면서 감소하면서 브랜드 1분기 매출은 감소했다. 국내 채널 매출은 증가했다"면서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코로나19에 마땅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정관장 천녹W 제품

/KGC인삼공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시장교란 차단,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대업자 공적의무위반 여부 점검
TF 확대...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치를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

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

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 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그는 “기준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소비자물가 0.7% ↑... 채솟값 28% 급등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코로나19·장마 등에 농산물값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식 소비 증가와 장마·집중호우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50(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올라 지난 3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4월 0.1%, 5월 -0.3%로 하락했다가 6월 0.0%, 7월 0.3%로 상승 추세를 돌아섰다.

하지만 저물가 기조는 여전히 이어진다. 통계청 이두원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올랐으나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10.6%) 크게 상승, 2017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28.5% 급등하며 농산물이 12.1% 올랐다. 채소류 상승폭은 2016년 11월(32.9%) 이후 최대다. 축산물(10.2%), 수산물(6.4%)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공업제품은 0.4% 하락했다. 이 가운데 석유류가 국제유가가 하락에 따라 10.0% 내렸고, 전기·수도·가스는 4.4%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1.4% 올랐다.

서비스는 0.3% 상승해 상승폭이 상품보다 작았다. 개인서비스는 1.1%, 외식이 0.5%, 외식 외가 1.5% 각각 상승했고, 공공서비스는 1.8% 하락했다.



집세는 0.3% 올랐다. 전세(0.4%)와 월세(0.2%)가 모두 상승했는데, 전세는 2019년 3월(0.5%)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월세는 2017년 2월(0.3%)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상승했다. 상승폭이 올해 1월(0.9%) 이후 가장 크지만, 2019년 8월 이후 1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4% 올랐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5.8%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28.6% 올랐다.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5% 상승했다.

/한용수 기자 hys@